

차례

三. 광야에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라

1) 광야의 외치는 소리

三. 광야에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박태선 장로님으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성령의 은혜 잔치판을 벌여 놓았을까?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듯이 박태선 장로님을 통하여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 놓고 그 속에서 구세주를 찾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1) 광야의 외치는 소리

“소리 있어 외쳐 가라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며 사막(砂漠)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광탄케 하라(사40:3)”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구세주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박태선 장로님의 외침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처음에는 기성교회를 통하여 다음에는 전도관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나서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 구세주 하나님을 찾아 출현시키기 위하여 외쳤던 것이다.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며” 라는 말씀은 구세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며, ‘사막(砂漠)에서 여호와와 길을 광탄케 하라’ 라는 말씀은 ‘흰 모래밭인 소(素砂)땅에서 여호와 이기신 하나님이 출현하실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잘 닦아놓아라’ 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기록을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9회)

제4편 이만제단 시대 1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형을 시켜 역지로 갖다 붙여 놓았던 것이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리라 하고 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니 일렀으되(마3:1) “광야에 소리 있어 외쳐 가라사대 주의 길을 예비하여 그 첩경을 곧게 하라(마3:2)”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변형시켜서 인용하고는 이를 이 광야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거짓말이다. 신약성경 공관복음에 적어 놓은 이 기록이 거짓된 것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첫째, 세례 요한은 그때가 구세주 오시는 때이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마3:2)”라고 외쳐 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국은 되지 않았다.

둘째, 세례 요한은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라고 말해서 당시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마3:10).

셋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거하는 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손에 킵을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했는데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는 구세주가 하시는 심판의 권세인데(마3:12) 예수는 심판을 하지 못했었다.

위의 세 가지의 내용은 구세주가 오



구세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신 박태선 장로님

시면 틀림없이 될 일들이다. 세례 요한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땅히 오실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다른 구세주를 기다릴까요?(마11:3)”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늦게나마 요한은 자기의 과오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이 예언말씀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며 이 분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식으로 되는 말씀이 아니다. 구세주는 그런 식으로 출현하게 되어 있지 않다. 광야에서 예비하는 분은 열매의 역할을 하

면서 사막인 흰 모래밭에서(素砂) 구세주를 찾아 광야(말실)에서 1260일 동안 연단시켜 승리자 구세주로 출현시키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것도 한 분의 구세주를 출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박태선님을 통하여 두 분의 구세주를 출현시켜 삼위일체(三位一體) 즉 세 분 구세주를 한 몸으로 합일시켜 이기신 하나님(완성의 구세주)으로 출현시키는 것이다(목3:21). 이 내용은 앞으로 자세히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라 주 여호와 장차 강한자로 임하여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리니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저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사40:9-11)”

이 말씀은 구세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박태선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식 즉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구세주 하나님의 출현)고 시온에 전하시는 박태선 장로님의 외치는 광야의 소리이다. 힘써 소리를 높여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너희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소리 높여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와같이 박태선 장로님은 “영원한 통치자 구세주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목청을 높여 외치시게 되는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바로 박태선 장로님이 외치시는 바로 이 소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어 친히 다스리신다”고 외치신다. 그와 같이 임하신 구세주 하나님은 마치 양을 치시는 목자처럼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다정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이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간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심이며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시도다(시편 23:1-3)”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인류

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구세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다. 구세주 하나님은 인류 속에 오시어 이와 같은 사랑으로 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구세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구세주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양의 무리들과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계시면서 등거동락하시면서 인류를 구원시켜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같이 거하시게 하는 분이 구세주이신 것이다.

더욱이 구세주가 출현하시는 것이 그저 예수처럼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내려와서(성령으로 임태하여)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외아들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천기인 구세주 출현방법은 참으로 오묘하기 때문에 예수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를 위시한 많은 거짓 것들이 구세주 출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제멋대로 떠들다가 제풀에 무너져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람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의 탈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야 이기신 하나님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세 분 하나님이 차례로 승리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으로 승리하여 일체가 되는 것이 완성된 승리하신 하나님(구세주)이 되는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소사땅에서 구세주 하나님의 출현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를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된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란 박태선 장로님의 하시는 일을 말한 예언인 것이다.*

도덕경 해설



戰勝以喪禮處之

전쟁에서 승리는 상중에법으로써 처리해야 한다

도덕경 31장 해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괴롭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불행한 세상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 세상이 돼버린 지가 옛날이다. 도덕경과 윤리가 땅에 현실팩처럼 버려졌고, 경우와 기본도 내팽개쳐졌다. 어린 사람이 웃어뜯을 공격하지 않고 부하가 상사를 무시하는 것이 보통일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싸우고 죽이니 짐승의 세계를 방불케 한다. 이것이 인간들이 주인이 된 참 민주주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란 말인가!

과거 노자의 시대에도 오늘날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리라. 이러한 세상을 노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무도인(無道人)으로 가득한 무도한 세상이라고 일침을 놓을 것이다. 인간이 도에서 멀어지면 괴롭고 고통으로 얼룩진 세태를 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도한 세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무력을 써서 낡고 병든 세상을 바꾸어 나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목도했다. 그렇긴 하나 무도한 세상에서 무력을 쓰는 데도 예가 있고 경우가 있는 법이다. 비록 군대를 거병할 대의명분이 갖추어졌

다고는 하나 무력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력을 사용하는 데에도 경우가 있고, 법도가 있는 것이다. 이 장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무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어렵고 복잡한 단어와 문장이 없으므로 주석은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夫佳兵者(부가병자): 바야흐로 군대를 좋아하는 것은
不祥之器(불상지기):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고,
物或惡之(물혹오지): 어떤 경우에는 좋지 못한 일이다
故有道者不處(고유도자불처): 고로 도를 닦은 자는 그런 일에 처하지 않는다.
是以君子居則貴左(시위군자거즉귀좌): 그래서 군자는 평상시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用兵則貴右(용병즉귀좌): 용병할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兵者, 不祥之器(병자, 불상지기): 군대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니,
非君子之器(비군자지기): 군자가 다룰 물건이 아니다.
不得已而用之(부득이이용지): 부득이 사용하여야 할 경우,
恬淡爲上(염담위상): 조용하고, 담담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勝而不美(승미불미): 이기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다.
而美之者(미미자자): 이기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자는
是樂殺人(사락살인):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夫樂殺人者(부락살인자): 대저 살인을 즐기는 자는
不可得志於天下矣(불가득지어천하의): 천하에 큰 뜻을 펼칠 수 없다.
吉事尚左(길사상좌): 길한 일에는 왼쪽을 숭상하고,
凶事尚右(흉사상우):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숭상한다.
偏將軍居左(편장군거좌): 편장군은 좌측에 머무르게 하고,
上將軍居右(상장군거우): 상장군은 오른쪽에 머무르게 하고,
言以喪禮處之(언이상례처지): 상중의 예법으로 처리함을 일컫는다.
殺人之衆(살인자중):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以悲哀泣之(이비애읍지): 슬픈 눈물로써 애도하고,
戰勝(전승): 전쟁에서 승리는
以喪禮處之(이상례처지): 상중에법으로써 처리해야 한다.*

김주호 기자

나의 생각 나의 제안

‘이긴자 구세주 연속 풍년 감사 대축제’ 날을 정해 2015년부터 감사 대축제를 열자

2014년은 주님께서 보광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15년은 주님께서 영생의 역사를 시작하신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다.

주님께서는 이 영생의 역사를 시작하신 첫해인 1981년도에 전 세계를 향하여 5대공약을 발표하셨다. 첫째,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둘째, 대한민국에 여름 장마(6.15-7.15)를 못지게 하겠다. 셋째, 대한민국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넷째,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풍년들게 하겠다. 다섯째, 한반도에 남북한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이 다섯 가지의 공약이 100% 다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네 번째 공약인 풍년에 대한 공약은 1981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장장 35년간이나 지켜지고 있는 것은 우리 승리제단 성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긴자 구세주의 5대공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승리제단 성도들뿐이다.

주님께서는 왜 5대공약을 발표하셨을까? 한번쯤은 되새겨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물론 주님께서는 당시엔 전지전능의 소유자요 무적장수(無敵將帥)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뜻도 있었지만 그 주된 이유는 우리 승리제단 성도들이 더욱더 체계적이고 더욱더 열성적으로 국내외에 전파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승리신문과 전도지로 많이 알려왔지만 많은 국민이 알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1981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해마다 쌀이 부족하였으나 1981년 이후부터 금년까지 35년간이나 풍년이 들게 하였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나 농정당국자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풍년이 드는 데 대해 연구나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 연속 풍년에 대한 감사함도 생각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뿐이다.

기성종교에서도 해마다 추수감사제라는 미명하에 추수감사 헌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금년에는 늦었으니 내년 2015년부터라도 우리 주님의 연속 풍년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가정 ‘이긴자 구세주 연속 풍년 감사 대축제’ 날을 정해 해마다 서울 복판에서 전국 성도가 다 모여 감사 축제를 열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 제단에는 현재 보광절을 포함하여 6대 절기행사가 있다. 이 절기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11월에 하면 딱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11월이면 전국적으로 추수가 다 끝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11월 11일은 전국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날에 맞춰 감사축제를 정하여 농민들을 설득하고 주지시켜 전도환성화를 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5대공약을 발표하신 날(18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전 성도가 서울 중심부에 모여 어깨띠를 두르고 행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주님께서 5대공약을 발표하신 녹화말씀을 들려주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 감사원, 농식품부 및 농민단체와 정부 각 부처에 5대공약 발표문 발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주님의 업적을 널리 알릴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이다.*

오양명 / 순천제단 책임장로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6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